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21세기 일본의 민족주의

김 호 섭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요약 |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라고 흔히 지적되는 일본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그 역사적 근원, 개념 및 일본 민족주의가 근대 시기 이념적으로 제안한 일·아시아 국제관계의 내용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된 일본 민족주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평화를 위한 공동체 형성의 현대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체(國體)주의, 국권주의, 국가주의, 일본주의, 정신주의, 무단(武斷)주의, 제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잡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및 이기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민족주의는 여러 갈래와 주장이 있으나, 천황 및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이론보다는 행동 중시, 일본의 민족적 전통 및 문화 우월성 강조,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 민족적 사명감 강조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적이며, 우월적, 서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보는 시각을 시정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는 얻을 수 없다. 일본이 자국중심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전통이 국민 전체에 체화되어 진정한 동아

시아 평화세력으로 거듭났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단계가 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언급한 “함께하고, 함께 나가는” (act together, advance together) 제안이 제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는가 여부를 동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1. 서론: 문제의 제기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 가운데 자유주의(Liberalism) 견해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으로 공동체 형성을 제안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그 공동체에 가입하여 각 회원국가들이 공통으로 준수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법을 제정하고, 평화를 침해하는 국가 혹은 조직을 공동체가 응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예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직된 국제연맹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국제 공동체가 국제연합이다.¹⁾

지역적 단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논자들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역단위 공동체가 지역 문제에 관한 정보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계단위 공동체보다 지역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세계단위 공동체는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문제의 당사국인 약소국 국익이 잘 보호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을 중심개

1) 현실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의 국력을 중시하며, 세력균형 형성을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념으로 하여 조직된 지역협력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APEC, ASEAN+3, East Asian Summit 등을 들 수 있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광범위한 지역협력체로서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하여 1993년 정상회의로 승격하였다. APEC은 동아시아-북미-오세아니아를 포괄하는 광역 경제협력 포럼 역할을 하고 있다. APEC 경제협력의 핵심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실현이지만 진전이 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회원국 간에 이질성이 높아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가 어렵고, 둘째,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합리적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없으며, 셋째,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가 회원국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유화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²⁾

ASEAN+3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지역협력체로서 지역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고 실질적인 지역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ASEAN+3 에서 압도적으로 국력이 우월한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한중일 3국이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이 배제되는 역내 안보문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2001년 4월 고이즈미 일본수상 취임 이후 양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중일, 한일간 최근 역사 및 영토문제에 기인한 갈등 때문에 1999년부터 연례화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조차

2) 삼성경제연구소, “APEC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2005년 11월 23일).

개최되지 못하였다.³⁾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n Summit: EAS)는 2005년 12월에 처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EAS 16개 참가국 정상들이 채택한 “쿠알라룸푸르 EAS 선언”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ast Asia Summit)에서 참가국들간 폭넓은 정치, 경제, 전략적 현안 등 공동 관심사 (common interest and concern)를 다루는 토론의 장 (forum)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ASEAN이 주도적 역할 (driving force)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EAS가 향후 1-2년내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실있는 기구 (institution)가 아니라, 아태지역내 또 하나의 공허한 토론과정(discussion process)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⁴⁾ 그 이유로는 회원국의 확대추세, 참가국들 간 의견대립 가능성, 운영방안의 불확실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여러 협력체가 지역협력 “기구”(institution)라기 보다는 “대화과정” (dialogue process)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지역협력체의 비전, 지역범위, 미국 참여에 관해서 참가국간에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⁵⁾ 여기에 더하여 이 글에서는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

3) 2006년10월 신임 아베(安倍晋三) 일본수상이 취임후 첫 번째 해외방문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직후에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4) 배궁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결과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 (2006년1월3일).

5) Edward Lincoln,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러 절차와 과정에서 주도국가가 필요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러한 국가가 당분간 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서 대체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ASEAN, 중국, 일본이다.

일본은 현재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및 경제구조 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지역통합 및 지역협력체 형성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과거 침략전쟁의 기억을 아시아인들에 되살리지 않을까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무대 뒤에 숨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이 지역통합 움직임의 전면에 부각되면 대동아공영권 추구 등 과거 제국주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⁶⁾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및 태평양 전쟁의 수행에 관한 해석이 정치적 현안으로 되었으며 일본의 민족주의적 견해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국내의 민족주의 움직임은 과거 제국주의에 의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 결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동아시아 지역에 배양할 국가로서 일본은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정치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라는 배경 하에서 역사해석이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 진보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가르는 정치적인 대립각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전후 50년을 계

6)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 強大化する中國と日本の戦略』(日本經濟新聞社, 2005), pp. 125-141.

기로 일본 국회에서는 과거 침략역사에 대해서 주변국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자는 주장이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퍼졌으며,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자학적이라고 반대하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일본 청소년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일본 민족의 지난 역사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강조함으로써 자신감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합리화하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드는 모임”이 제시한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7개 포인트’ 중에 “애국심 강조”와 “자학사관 극복”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주의 세력들은 1999년 히노마루(日の丸)와 키미가요(君が代)를 국기와 국가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법률이 성립된 것을 커다란 정치적 승리로 보았다. 일본 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도록 기술하는 정치적 움직임은 2006년11월 아베(安倍) 수상이 주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반영되었다.⁷⁾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라고 흔히 지적되는 일본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그 역사적 근원, 개념 및 일본 민족주의가 근대 시기 이념적으로 제안한 일·아시아 국제관계의 내용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된 일본 민족주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평화를 위한 공동체 형성의 현대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7) 安倍晋三, 『美しい國へ』(文藝春秋, 2006), pp. 201-210.

2. 일본 민족주의 개념: 역사적 근원과 이념적 내용

(1) 개념의 명칭

일본에서 민족주의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일본 학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내셔널리즘,⁸⁾ 국가주의,⁹⁾ 국민주의, 일본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극단적 민족주의를 우익이라고 표현한다.¹⁰⁾ 일본에서 상기 개념을 사용하는 인물이나 단체들도 주장하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내용과 이념에 근거한 행동양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본 학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내셔널리즘'이지만, 이번 특집의 다른 글과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이 글에서도 사용한다.

8) 平石直昭,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何が問われているのか,” 『社會科學研究』, 第58卷 第1号,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刊行(2006年9月), pp. 9-35; 文藝春秋社가 매년 발간하는 『日本の論点』에는 거의 매년 일본 내셔널리즘을 논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9) 국가주의(國家主義)라는 개념은 한상일, 『日本の國家主義』(서울: 까치, 1988); 日本內務省警保局編, 『國家主義運動の概要』(東京: 原書房, 1974; 原本 1933); 『國家主義運動: 現代史資料 4-5: 23』(東京: みすず書房, 1974); 堀幸雄, 『戦前の國家主義運動史』(東京: 三嶺書房, 1997) 등에서 사용하였다.

10) 우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서는 社會問題研究會編, 『右翼事典: 民族派の全貌』(東京: 双葉社, 1970); 堀幸雄, 『戦後の右翼勢力』(東京: 勁草書房, 1983); 松本健一, 『思想としての右翼』(東京: 第三文明社, 1976) 등이 있다.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東京: 影書房, 1996); 久野收, 『ファシズムの中の1930年代』(東京: リプロボート, 1986); 須崎慎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天皇制・軍部・戦争・民衆』(東京: 大月書店, 1998) 등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체(國體)주의, 국권주의, 국가주의, 일본주의, 정신주의, 무단(武斷)주의, 제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잡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및 이기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민족주의는 여러 갈래와 주장이 있으나, 천황 및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이론보다는 행동 중시, 일본의 민족적 전통 및 문화 우월성 강조,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 민족적 사명감 강조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천황 및 외래문화에 관한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극단적’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된다.¹¹⁾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국체(國體), 즉 천황제를 국가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문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고래의 풍습과 도덕을 일본의 현실 정치에 실현시켜주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상황으로 본다. 여기에서 실천의 측면은 중요하다. 일본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상적 정치사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얻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리는 행동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한 현실정치 참여의 양태는 1920년대, 1930년대 정치인과 대자본가의 암살이나 군대에 의한 쿠데타를 포함하는 극도로 과격한 행동까지를 포함하며, 현대 일본정치에 있어서도 폭력을 사용하여서라도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11) 社會問題研究會編, 앞의 책(1970), p. 41.

(2) 민족주의의 발흥: 서구화 정책 반대로부터 대아시아주의로

일본 민족주의는 구미 국가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쇄국에서부터 개국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 열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서구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표현되었고, 우월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확대적 민족주의인 대아시아주의로 표현되었다. 서구세력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열등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확대적 민족주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일본 민족주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1853년 페리(W. Perry)의 내항이후 개국을 요구한 서구세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즉,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채택한 개국과 서구화 정책에 반대하여 천황의 친정(親政)과 배외(排外)주의를 주장하였던 존황양이(尊皇攘夷) 운동에서 그 성격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존황파(尊皇派)는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막부 토벌에 성공한 이후 일본 국내체제의 후진성을 탈피할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견지하였던 배외양이(排外攘夷)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서구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특히 명치유신의 지도자였던 이와쿠라도모미(岩倉具視), 오오쿠보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일본의 경제, 문화, 행정 등 각 부문에서 후진성을 통감하고 서구의 개화된 문명을 적극 수용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문명권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으로만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서구 문명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배우려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도 서구세력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잃은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일본 국내에서 파시즘이 출현하여 태평양전쟁을 개전하게 되기까지 서구세력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두려움과 열등감을 민족주의 세력에게는 불식할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여서는 바로 과잉 상태가 되어 주관적으로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초국가주의로 빠지게 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화가 늦은 국가 특히 조선포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본 민족주의는 국가 우월성을 확인하고 메이지 정부가 취한 서구문명에 대한 개방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¹²⁾ 배타적 민족주의에서부터 서구화 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후 일본 우익운동의 초점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확대적 민족주의로 옮겨갔다. 1870년대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던 정치세력은 메이지 정부가 정한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메이지 정부의 서구화 정책에 반발하고 일본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운동세력으로 발전되어 갔다. 민족주의 운동은 메이지 정부의 중앙집권적 중앙정치에 반대하는 자유민권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가인 토우야마미츠루(頭山滿)는 오오쿠보(大久保利通) 암살사건 직후(1878년) “서구화 신정부” 타도를 주장하였다.

1880년대 일본 국내에서는 다수의 민족주의 운동단체가 만들어졌다. 현양사(玄洋社)는 확대적 민족주의 즉, 대아시아주의를 실현시키는 최초 대상을 조선으로 삼고 당시 조선의 개화운동에 관여하였다. 현양사는 조선독립당(朝鮮獨立)의 개화운동을 도왔으며 박영효(朴泳孝), 김

12) 坂本多加雄, “征韓論の政治哲學,” 『日本政治學會年報』(1998年), pp. 55-69.

육균(金玉均) 등이 일본에 망명하였을 때(1884년) 비호세력이 되었다. 1894년 동학혁명에도 참가하여 조선을 청(淸)국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친일 정권의 수립을 도모하였다. 청일전쟁 및 노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현양사(玄洋社) 회원 다수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대외팽창정책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현양사에서 갈라진 흑룡회(黑龍會)는 청일전쟁이후 일본의 대청(淸) 전쟁배상 요구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든 3국간섭에 분노하여 조직되었다. 흑룡회는 대외팽창적 일본 민족주의 이념들인 대아시아주의, 천황중심주의, 국수주의, 현상타파라는 요소를 그 강령에서 제시하였다.¹³⁾

메이지 시기에 있어서 일본 민족주의 운동은 서구화 정책의 반동으로서 발생하여 그 이후에 대아시아주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치 과정에서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모리 아리노리(森有), 호시 토오루(星亨), 오쿠마 시게노부(大常重信) 등이 암살되거나 피습되었으며, 이러한 테러는 이후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인 우익의 현실정치 참여 형태로서 정착되었다.

3. 일본 민족주의 지도원리

이 장에서는 일본 민족주의 이념 내용을 첫째, 일본주의, 둘째, 국가주의 및 국민주의, 셋째, 대아시아주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3) 社會問題研究會編, 앞의 책(1970), p. 42.

(1) 일본주의(日本主義)

(가) 일본주의 내용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메이지 정부의 국가개혁 움직임 속에서 서구 문명 및 서구 모델에 맞서는 일본의 독자성 및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중심 이념으로 일본주의 혹은 일본정신을 주장한다. 또한, 일본 국가의 운영원리는 일본정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일본은 독창적이며 독자적 개혁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정신 및 일본의 독창성, 독자성을 일본의 천황에서 찾는다. 메이지 시기 일본주의자들은 일본의 국체(國體)를 천황제라고 하고 국체에 반하는 일체를 거부하며 일본정신, 일본문화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혁하여 “일본국체의 정화,” “일본건국의 정신,” “대일본의 도(道)”를 일본 안팎으로 발양할 것을 강조한다.¹⁴⁾

메이지 시기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독자성 및 독창성은 일본 개혁을 일본 자체 속에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의 대표적 단체인 신무회(神武會) 선언문에서는, “우리의 혁신운동은 외국의 앞선 것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며, …… 일본혁신의 원리를 결단코 외국에서 구하지 않으며, 일본 그 자체 속에서 구한다. …… 진정하게 일본을 일본스럽게 하는 위대하며, 고귀한 힘은 신무건국(神武建國)의 정신 이외에는 없다”고 하였다.¹⁵⁾ 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주의가 서구문명의 대안으로 일본정신을 제시하였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본

14) 內務省警保局編, 『國家主義運動の概要』(東京: 原書房, 1974年; 原本 1933年刊), p. 413.

15) 위의 책, p. 414에서 재인용.

정신이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1920년대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소화유신(昭和維新)을 부르짖었던 민족주의 혁신론자들은 일본국체의 선양, 건국정신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외국 것과 전혀 다른 일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세에 신으로 계시는 한 분을 국민정신의 끊이지 않는 연원으로 이것에 신일본 건설의 기초가 있다”라고 한다.

일본주의가 일본 민족주의 중심 지도원리라고 하는 주장은 그 내용이 매우 애매하다. 예를 들어, 신무회는 일본정신을 신무(神武) 건국의 정신이라고 하지만,¹⁶⁾ 신무건국의 정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루어 추측하면, 일본주의의 요소는 우선 황실에 복종하고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를 존중하며, 아시아를 제패하겠다는 일본 국가지상주의와 일본 국수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주의 혹은 일본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본 황실에 충성심을 강조하는 충성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충성심 내용도 충성하는 측의 진정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충성받는 측의 판단기준과 의지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황실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황실 충성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현실 정치에서 합리화하였으며, 일본 국민들을 전쟁 수행에 동원하였다.

16) 위의 책, p. 413에서 재인용.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주의 기원을 고대 건국신화에서 찾는다. 그들은 일본주의는 건국이래 발전되어 온 것으로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記),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등 고대 문헌에서 일본 건국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건국의 정신을 역사서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고찰하면, 건국정신으로 '황도'(皇道)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일본 건국정신은 '황도'이며, 황도는 일본정신이다. 즉 일본 건국정신은 일본(독자적)정신이 된다. 이 논리는 동어반복에 불과하지만,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주의 및 일본정신을 자신들의 행동 중심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다.

일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주의를 단순한 신앙이나 신념의 범위를 벗어나서 학문적 기초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국체과학", "과학적 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론으로서 일본주의의 과학적 기초를 찾고자 하였다. 일본주의를 일부 관념론자들의 논의대상에 그치지 않고, 일반 대중이 공감하여 지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시기는 일본주의 운동이 소수의 정신운동에서부터 국민대중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중적 정치운동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주의를 현실세계의 국가상태에 적용하여 대내외 상황에 의해서 일본이 국가 비상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혁신안의 정치이념적 근거로 이용하였다. 즉, 일본주의는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여러 혁신안을 제출하는 기본적인 정치사상이 되었으며, 각 방면에 있어서 일본 혁신운동의 적극적, 구체적 주장에 '지도원리, 근본정신'을 제공하였다.

일본주의자들은 개인이나 국민보다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일본주의의 견해를 따르다면 일본주의는 국가를 역사적 전통적인 모습으로 파악한다. 즉 법률과 정치 등이 존재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법률, 정치 등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국가의 우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체관념의 발휘, 건국정신에의 복귀사상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최고로 도덕적이며 특수하며 독자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국가 지상주의적 주장이 되어 버린다.

또한, 일본주의자는 추상적 혹은 시공을 초월한 일반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를 독자적이며 통일적인 생명체로서 파악한다. 따라서 일본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이 역사적, 전통적 일본의 유구한 생명, 통일된 이상”이며, 이 “국가 생명, 민족 이상의 파악, 발양”의 실현이 일본주의의 근본목표가 된다.

(나) 일본주의: 정신파와 이론파의 주장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최고 지도정신으로 ‘일본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일본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동어반복적 요소가 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¹⁷⁾

일본주의파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서 신도(神道)나 신무정신을 말 그

17) 자유주의자 및 좌익은 일본주의를 일본 제국주의, 일본 파시즘 혹은 일본 민족주의라고 정의한다. 우익들 중에서도 국가사회주의자 일파는 “국가사회주의가 일본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로 현대에 회복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복고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단순한 국체관념의 찬미, 회고 및 고창은 일본주의가 아니며 일본의 특수성과 전통에 근거하는 신일본 건설운동의 중심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일본주의를 하나의 신앙, 인생관 내지 세계관으로 취급하는 정신파도 있으며, 논리적으로 정리된 이론체계로서 그 과학적 기초를 만들려는 이론파가 있다.

일본정신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 본질적 의의를 어디에서 구하는가에 따라서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는 일본정신이 포함하는 내용으로부터 의의를 찾아내어서 일본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려는 입장이다. 둘째는 일본주의는 다종다양한 것을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본주의를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표현하고 구체적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라거나 파시즘이라고 하는 견해는 전자에 속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혹은 파시즘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일본주의 발현의 한 형태로 보며 일본주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주의를 추종하는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주의는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내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외래사상에 대립하여 일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복고사상으로서 사회의 변혁운동의 지도원리가 되기도 하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적 무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주의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며 시대에 따라서 다종다양하다는 것이다.

극단적 민족주의자인 우익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일본주의는 일

본 정신에 입각하며 그 정신은 국체사상(國體思想)을 근거로 한다. 국체의 근거에는 ‘천지의 대생명, 가장 깊은 진심’의 표현으로서 만물에 빛을 주고 만물을 만드는 아마테라스 오오가미(天照大神)의 일본정신이 있다고 하여 건국신화의 세계로 논리를 비약한다.¹⁸⁾

정신과 일본주의자들은 일본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건국의 대정신, 국체의 정화이며 신무건국(神武建國)의 정신의 선양과 신국일본(神國日本)의 실현 등의 관념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일본주의를 어디까지나 강열한 정신운동이라고 하고, 일본정신 즉 국민정신의 확립과 황도 및 국체관념의 천명창달, 천황친정의 철저한 확립을 강조한다. 정신파에 의하면 일본주의가 진정한 일본주의로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본질인 일본정신이라는 기초로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신과 일본주의자들은 일본 정신은 이론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카다니(中谷武世)는, “일본주의는 하나의 인생관이며 세계관이다.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피와 의식이 통하는 생활원리이다. 일본인으로서의 생활신조이다. 추상적 이론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체계잡힌 국민의식이며 민족감정이다. 따라서, 일본정신은 해설되고 분석되고 비판되고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되고 공감되고 직관되고 내성(內省)되는 것이다. 일본주의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주의는 알기보다는 느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주의에 일부러 형용사를 붙여서 「과학적」 일본주의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이미 일본주의의 진수를 망각한 것이다. 일본

18) 內務省警保局編, 앞의 책(1974), p. 430.

주의는 방법론 이상이기 때문이다.…… 일본주의란 일본 본위주의, 일본 제일주의, 일본 지상주의이다.”¹⁹⁾

이론과 일본주의에 의하면, 일본주의는 단순히 국체찬미의 복고적 정신만이 아니며,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하며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파들은 일본주의가 이론적, 체계적 내용을 가지는 근대적 국가 지도원리이며 국가개조의 최고지표이며, 따라서 일본주의 운동은 특수성, 의식성을 가지는 국민적 창조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론파는 정신파의 일본주의 주장을 비판한다. 즉, 정신파는 국체관념, 일본 고유정신, 신무(神武)건국 정신의 선양을 강조하며, 신도(神道)를 주창하고, 정신적 복고, 국체찬미를 주장한다. 그 결과, 일본주의에 대해서 이론적 비판과 내적 성찰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일종의 독선으로 흘러서 일본주의를 이론보다는 감정이며, 설명·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론파는 일본주의에서 현실적 요소를 발견하여 이에 입각한 국가의 개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주의는 국민적 창조운동의 지도원리이기 때문에 일본주의 이론은 과학적, 조직적으로 검토되어 자기비판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히지카타 나루미(土方成美)는 “일본주의는 국가 제도상에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가, 또한 그 정신에 입각하여 장래의 사회개조를 행한다면 경제조직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위의 책, p. 432.

(2) 국가주의 및 국민주의

‘국가주의’ 혹은 ‘국민주의’ 라는 개념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번역한 개념이며, 각각 다른 내용을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강조한다.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주의 내지 국민주의는 일본주의 색채를 농후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국가주의 내지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일본주의를 “일본주의적 국가주의(또는 국민주의)”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일본주의와 국가주의 내지 국민주의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주의 그 자체가 “일본의 국가주의” 혹은 “일본의 국민주의”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마츠 가츠타로(赤松克鷹)는 “일본국민의 국가주의는 당연히 일본적 특색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국가주의는 일본주의”²⁰⁾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국가주의’에 관해서 아카마츠(赤松)는 “일본 국가는 천황이 가장(家長)인 대가족이며,…… 여기에 일본 국가주의의 가장 현저한 특색이 있다… 일본의 국가주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²¹⁾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민족주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 국가주의

국가주의란 국가 지상주의를 의미한다. 즉, 개인 및 다른 사회에 대

20) 위의 책, p. 448.

21) 위의 책, p. 434.

해서 국가 지상주의를 강조하고, 국가적 필요 앞에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욕망과 이익은 희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욕망과 능력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충돌한다.

하야시(林癸未夫)에 의하면, “국가주의는 국가지상주의이며 국가제 일주의로서, 개인의 전 생활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개인은 우선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위해서 협동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개인적 욕망·사회적 이익은 국가 이익보다 하위에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희생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여러 활동은 단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본위로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²²⁾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첫째, 국가는 사회 생활의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국가에 대해서 시민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셋째, 국가는 계급을 초월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²³⁾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국가 유기체설을 채택하여 국가를 유기적 존재로 보고, 그 생명이 영구하다고 역설한다. 즉, 키타 잇키(北一輝)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유기적으로 불가분하며 한 가족이다. 이것은 사회유기체설이라는 근대의 철학과 종교적 신앙으로부터 발현되는 고래 일관의 신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은 국가지상주의가 주장되기 때문에 다원적 국가론 및 계급적 국가관은 부정된다. 국가를 개인의 이익추구 확보수단 혹은 계급

22) 위의 책, pp. 449-450.

23) 위의 책, pp. 450-451.

24) 위의 책, pp. 451-452.

전제(專制) 내지 지배계급 착취수단으로 보는 것을 배척하고 국가를 다른 여러 사회와 같은 하나의 파생사회라고 보는 주장도 민족주의자들은 배척하고 있다.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국가를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를 주권과 인민과 영토를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라고 하는 헌법학 내지 정치학의 태도를 배척한다.

(나) 국민주의

국민주의에서는 조국의 의미가 강조된다. 즉, 국민주의는 조국 지상주의이며, 조국의 옹호에서 시작하여 주권 및 문화의 국외 진출을 주장한다. 자국의 독자성,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고양하며, 그 우월한 자국의 문화 및 자국민의 이상을 대외에 선포한다. 일본 민족주의자들에게 조국은 일본이기 때문에 국민주의란 일본 지상주의이며 이것은 곧 일본주의에 귀착된다. 하야시(林癸未夫)에 의하면, 국가주의는 개인주의에 대한 국가 지상주의이며, 국민주의는 국제주의에 대한 조국 지상주의라고 정의한다. 즉, “국민주의의 특징은… 조국의 전통을 옹호하고 조국의 문화를 선양하며, 조국의 자유를 확보하고 조국의 영예를 발휘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국민주의는 타국으로부터 위협, 압박, 침략 등을 받는 경우에 특히 발흥된다. … 국민주의에 대립되는 것이 국제주의이며 인터내셔널리즘이다. 국민주의가 조국지상주의인 것에 반대로 국제주의는 초국가적·초민족적인 인류 전체의 복지를 제일의 원리로 삼는다.”²⁵⁾

25) 위의 책, pp. 453-454.

여기에서 일본의 독자성 내지 우월성은 결국 일본 국체의 발취로 귀착한다. 일본국체를 일본의 우월성의 근거로 삼아서 대내외에 철저하게 주장하는 점은 우익들에게 일관되는 특색으로 신비주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양자는 구별할 수 없으며 국가주의는 본질적으로 국민주의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견해도 있다. 나카다니(中谷武世)에 의하면 “내쇼날리즘의 번역어로서 국가주의라는 말이 일본의 학계 및 실제운동에 있어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다수가 이해하여온 것이 내쇼날리즘이며 국민주의의 내용이다. 즉, 국민주의 내지 조국주의는 애국주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국가주의의 개념으로 관용되어 왔다.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이를 배척하는 사람도 국가주의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²⁶⁾

4. 대아시아주의

명치유신이후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아시아에 대한 외교문제에 관해서 확대적 민족주의를 전개하였다. 1910년 조선 병합이후 만주, 몽고, 중국 대륙으로 일본이 침략하는 논리적 근거를 일본 민족주의는 제공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영국과 미국이 비판하자 앵글로색슨의 세계제패에 유색인종이 단결하여 대항하자는 논

26) 위의 책, pp. 455-456.

리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백색인종에 대한 유색인종의 해방론은 1850년대 개국 직후의 존왕양이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확대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대(大)아시아주의로 종합할 수 있다. 대아시아주의는 일본을 아시아 민족의 맹주로 하고 백색 인종 특히 앵글로 색슨의 세계제패에 대해서 유색인종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일본 국익의 철저한 관철과 대외팽창적 외교노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1930년대 민족주의자들은 대아시아주의라는 명분으로 외교정책의 중점을 중국과 만몽(滿蒙) 지역에 두고 그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확보를 주장하고 이에 간섭하는 서구 국가에 대해서 연약(軟弱)외교를 배격하고 강경외교를 주장하였다. 특히 만주사변, 상해사건 등에 관련하여 서구국가들과의 국익 다툼이 일본 민족주의자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어서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중국 문제에 관해서 강경한 의견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와시마(川島浪速)은 “우선 중국 및 몽고를 얻고, 계속해서 아시아의 각 민족을 노예상태에서 구출하여 ... 이를 규합 일치시켜 백색인의 정의롭지 못한 침략적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우리 천황을 아시아의 대지도자로 모시자”고 하였다.²⁷⁾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대아시아주의에 근거하여 즉, 일본 국익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 구축, 즉 아시아 대륙을 일본이 지배하려는 이념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 (2) 동아연맹(東亞聯盟) (3) 황도아세아(皇道亞細亞)론을 들 수 있다. 위의 세 개념은 모두 일본의 주도하는 것에 공통점이

27) 위의 책, pp. 552-557.

있으며, 차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권을 허용하는 정도에 있다.²⁸⁾

(1)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

동아협동체론은 협동체 원리를 동아시아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²⁹⁾ 일본 민족주의자들에 의하면, 동아협동체의 사상은 추상적인 세계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세계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계통일을 추구한다고 한다. 동아협동체는 봉건적인 계마인사프트와 같이 폐쇄적이지 아니며,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 문호를 개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아협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키 키요시(三木清)는 중국에 민족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동아협동체 형성을 위해서 일본 스스로 봉건주의를 타파하였듯이 중국에서 봉건주의 타파에 일본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발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아협동체 내에서 국가별로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민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치유신의 일본과 같은 자유주의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발전은 없고 하였으며 중국 민족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성의 이념에 선 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8) 아래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인용은 『現代史資料 (23): 國家主義運動(三)』(東京: みすず 書房, 1974), pp. 53-56을 참조하였음.

29) 동아협동체론에 관해서는, 함동주, “동북아공동체 구상으로서의 ‘동아협동체론’: 그 가능성과 한계,” 김영작·김기석 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한울아카데미, 2006), pp. 39-59 참조.

(2) 동아연맹(東亞聯盟)

청일전쟁, 노일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타난 아시아연방(連邦)론은 대 아시아주의의 일종이다. 1905년 다나카(田中守平)의 동아연맹론(東亞聯盟論)에는 청·일·한(淸日韓)의 동아3국을 연방제로 묶어서 일본 천황을 연방의 수장으로 하자고 하였다. 1913년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의 『지나론』(支那論)에서는 일본이 만주를 독립시켜서 중국 대륙에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이후 아시아 각국을 연방제로 연결시켜 맹주가 되어 아시아 인종을 지도하여 백인종에게 저항하자고 주장하였다.³⁰⁾

동아연맹이라는 호칭은 1933년 3월 만주국 협화회(滿洲國 協和會)가 발표한 성명 중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즉 “만주국 협화회는 왕도주의(王道主義)에 기반하는 건국정신을 국민에게 철저히 보급하고, …전(全)지나 본토에 민족협화의 운동을 펼치고 이를 확대하여 전 동아시아에까지 넓혀서 동아연맹을 결성하는 것에 의해서 동양문화의 재건과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동아연맹협회(東亞聯盟協會)가 발행한 「동아연맹건설강령」(東亞聯盟建設綱領)에 의하면 동아연맹의 지도원리는 왕도주의(王道主義)라고 하였다. 즉, “동아연맹의 지도원리는 왕도주의에 의한다. .. 일본에 있어서는 국체(國體)에 따라서 왕도주의가 대체로 강력하게 실행되어 왔다. 왕도의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각 민족이 그 자유와 존엄을 보존하면서 대동 단결할 것인가. 또한 각 국가가 그 내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등은 금후 동아연맹 건설도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입안 검토하

30) 지나(支那)라는 명칭은 중국을 멸시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山室信一, “日本外交とアジア主義の交錯,” 『日本政治學會年報』(1998), pp. 3-32.

여 계통을 만들어서 지도원리로서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동 협회는 동아연맹의 조직원리를 첫째, 연맹 성립에 관한 공동선언 및 협정을 결정하고, 둘째, 연맹에 가입하는 각 연맹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아연맹 통제기관을 설치하여 그 관할사항은 연맹 공동의 국방과 연맹 공동의 국민경제 조직이라고 하였다. 연맹에 속한 각 국가는 연맹현장과 연맹협정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각국의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하여 연맹 탈퇴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3) 황도아세아(皇道亞細亞)

황도아세아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확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대동아 건설의 지도이념은 황도(皇道) 이외에는 없다고 하며 동아협동체론, 동아연맹론을 배격하였다. 동아협동체론, 동아연맹론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를 근본 기저로 하는 것으로 일본정신에 반하며 황국(皇國)의 주권 포기라는 것이다. 지나(支那)에 삼민주의를 청산하고 진정한 친일흥아(親日興亞)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먼저 삼민주의적 자유주의를 청산할 황도(皇道)유신 내각을 수립하자고 하였다. 그들은 구미 유태 세력이 지배하는 지나(支那)를 독립시키고, 그 재건설 과정은 황국 일본인의 지도(指導)에 의해서 황도아세아(皇道亞細亞)의 기분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국책(國策)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주의자인 우다(宇田尙)는 “동아의 신체제에 있어서 일본이 그 지도적 입장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일본은 동아, 아시아, 세계

에 대한 진정한 도덕적·문화적 사명에 눈떴으며, 명치대제(大帝)의 성지(聖旨),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성지를 올바르고 깊게 이해하여 그 실현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다. 일본이 지도적(指導的) 입장에 서야 국제연맹에서 영불(英佛)의 자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일본이 도덕적·문화적으로 지나(支那)를 지도하는 것만이 지나를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시정시키고, 문화적으로 진보 발전시킨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형이 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동아를 지도하여야 한다.”

대동아공영권론(大東亞共榮圈論)은 황도아시아론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³¹⁾ 대동아공영권에서는 지도국가 일본이 독립국가인 만주국과 중국을 지도하고 독립보호국가인 버마, 필리핀을 일본이 종주국으로서 보호한다는 관계로 구성되었다. 즉 독립국으로 존재하지만 절대 주권의 원리는 부정되었다. 대동아공영권내에서는 일본의 지도에 의한 구심적 통합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관념의 외교는 대립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아시아 내에서는 외교는 성립되지 않으며, 일본의 대동아성(大東亞省)에 의한 지도로 대체하려는 도오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의 외교관념과 상통한다.³²⁾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는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의 절대성과 대등성을 부인하고 어디까지나 일본 국익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지도국가로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를 몇 개 계층에 서열적으로 배치하였다. 공영권에 속한 국가는 일본과 개별적으

31) 1942년 9월 高木惣吉 대좌가 주도하여 일본 군부가 작성하였다고 한다. 위의 글, p. 21.

32) 위의 글, pp. 3-32.

로 연결되며 공영권에 속한 국가간에는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일본을 매개로 하여야만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국가가 일본의 매개없이 직접 관계를 형성하면 일본의 지도적 지위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일본적 가족국가관을 기초로 한 것이며 주권국가 체계의 부정에 의해서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화이질서(華夷秩序)와 종번(宗藩) 국가체계의 재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적어도 대동아공영권 역내의 국가에 외교는 없다는 주장은 종번국가 원리와 상통한다.

대동아공영권내의 국가간 관계는 가족과 형제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 공영권 내에서 일본이 구성한 서열적(序列的) 구조는 문화적 가치의 서열을 정치적 상하질서의 관계로서 실현하려는 동아황화권(東亞皇化圈)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대동아공영권론(大東亞共榮圈論)은 일본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국익상의 이해관계와 아시아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의 국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와 정도도 일본이 결정한다고 하는 일본 국익 중심의 국제질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상에는 일본 국익이 이데올로기화되었으며 일본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 과잉상태로 행동하였다.³³⁾

33)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東京: 影書房, 1996), pp. 335-344.

5. 결론: 일본의 민족주의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주의에 관련하여 최근 일본으로부터 두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본 정치가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행한 국내지향적 정치행위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가국들간에 신뢰 형성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움직임이다. 그 예가 과거 일본 민족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행위로 국제사회가 규탄한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와 같은 행위이다.

2001년 4월에 취임한 고이즈미 수상은 일년에 한번씩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역사문제를 중일간, 한일간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야스쿠니 참배의 주 목적은 국내정치의 지지세력을 동원하는 것이었으며, 주변국가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행위에 관련하여 제기된 역사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일간 및 한일간 갈등이 외교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서 수상이 국내정치 세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행위로부터 추측하면,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에 관한 인식은 일본 국내에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내 보수 내지 우익적 역사인식을 어떻게 외교적 및 국가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국내적 합의가 없는 듯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국내사정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역사문제에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주변국가와 갈등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른 한편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다. 1990년대말 이래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는 지역협력을 중시하는 외교로 전환하였다. 물론 미일관계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중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거보다 지역협력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지역협력 외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동아시아에서 지역기구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둘째, 동아시아 지역국가와 FTA 교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RF, ASEAN+3, East Asian Summit (EAS)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EPA를 서명한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과 ASEAN: 솔직한 파트너십을 바라며”라는 제목의 일본의 대ASEAN 정책연설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였다. 그 연설에서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을 제안하였다. 즉, 일본과 ASEAN과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ASEAN+3의 틀에 호주, 뉴질랜드를 더하여 동아시아를 “함께 걷고, 함께 나가는(共に歩み, 共に進む) 커뮤니티” (a community that acts together and advances together)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이었다.³⁴⁾

이 구상은 지금까지 일본이 냉전시기에래 외교노선으로 채택하였던 국제연합이나, GATT/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로부터 전환하여 동아시아 지역기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책전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냉전종결 이후 일본외교에 있어서 동아시아 안전보장 시스템을 미일동맹을 핵심요소

34) “東アジアの中の日本とASEAN-率直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求めて”(2002년1월14일 발표),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4/ekoi_0114.html (검색일: 2006.04.29).

로 하는 세력균형 정책과, ASEAN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협조적 안전 보장’이라는 정책대안을 병립하여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³⁵⁾

냉전시기 일본외교에 있어서 아시아외교는 어디까지나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일본 자신이 아시아 국가를 대등하게 협력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다. 명치유신 이래의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가 가지는 의미는, 아시아에 속해있지만 아시아적 조건으로부터 탈출하여야 한다는 즉, “탈아입구(脫亞入歐)”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다른 한편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서 서양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주의”라는 의미가 있었다. 냉전시기 일본의 외교전략은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탈아입구적 아시아관이 팽배하였다. 1990년대말 이래의 일본의 지역협력 정책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는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발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일본이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일본 경제는 아시아 경제와 ‘운명공동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경제와의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긍정적이라고 인식한 듯하다. 일본의 인식 변화 속에는 아시아

35) 山本吉宣, “協調的安全保障とアジア太平洋,” 森本敏編, 『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財團法人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03); 添谷芳秀, “東アジア安全保障システムのなかの日本,” 添谷芳秀·田所昌幸編, 『日本の東アジア構想』(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

36) 日本外務省, “アジア 濟再生 ミッション報告書”(1999年 11月), <http://mofa.go.jp/mofaj/area/asiakeizai/saisei/hokoku.html> (검색일: 2001. 3. 24).

와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적인 협력체제의 형성에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체제는 일본에게 있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있어서도 커다란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일본의 자각을 포함한다.

일본의 아시아 정책에 관련한 두가지 흐름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본의 자국중심주의적이며, 우월적, 서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보는 시각을 시정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본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이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의 지도력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자국중심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전통이 국민 전체에 체화되어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세력으로 거듭났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즉,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언급한 “함께하고, 함께 나가는” (act together, advance together) 제안이 제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는가 여부를 동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배궁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결과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2006년1월3일).
 삼성경제연구소, “APEC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2005년11월23일).
 한상일, 『日本の國家主義』(서울: 까치, 1988).

Lincoln, Edward,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 久野收, 『ファシズムの中の1930年代』(東京: 리브レポート, 1986).
- 堀幸雄, 『戦前の國家主義運動史』(東京: 三嶺書房, 1997).
- _____, 『戦後の右翼勢力』(東京: 勁草書房, 1983).
- 内務省警保局編, 『國家主義運動の概要』(東京: 原書房, 1974年; 原本 1933年刊).
- 社會問題研究會編, 『右翼事典: 民族派の全貌』(東京: 葉社, 1970).
- 山本吉宣, “協調的安全保障とアジア太平洋,” 森本敏編, 『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財團法人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03).
- 山室信一, “日本外交とアジア主義の交錯,” 『日本政治學會年報』(1998).
-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 : 強大化する中國と日本の戦略』(日本經濟新聞社, 2005).
- 松本健一, 『思想としての右翼』(東京: 第三文明社, 1976).
- 須崎慎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天皇制・軍部・戦争・民衆』(東京: 大月書店, 1998).
- 安倍晋三, 『美しい國へ』(文藝春秋, 2006).
-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東京: 影書房, 1996).
- 日本内務省警保局編, 『國家主義運動: 現代史資料 4-5: 23』(東京: みすず書房, 1974).
- _____, 『國家主義運動の概要』(東京: 原書房, 1974; 原本 1933).
- 日本外務省, “アジア 濟再生ミッション報告書”(1999年 11月), <http://mofa.go.jp/mofaj/area/asiakeizai/saisei/hokoku.html> (검색일: 2001. 3. 24).
- 添谷芳秀, “東アジア安全保障システムのなかの日本,” 田所昌幸編, 『日本の東アジア構想』(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
- 坂本多加雄, “征韓論の政治哲學,” 『日本政治學會年報』(1998年).
- 平石直昭,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何が問われているのか,” 『社會科學研究』, 第58卷 第1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刊行, 2006年9月).